



▲와인트레인(열차)

*편집자 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 조직혁신, 성과관리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우수 사례

와인트레인으로 지역 소득 증대와 협력 사업을 도모하는, 충북 영동군

오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사람들은 우리나라 농촌은, 심지어는 중소도시들은 희망이 없다고들 얘기한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려고만 한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고유한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무기로 활력을 되찾고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영동군은 전국 포도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최대의 포도 생산지로 약 4,600여 농가가 2,400ha에서 연간 4만여 톤의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영동군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기는 하였으나 공급과잉이 되면 제값을 못 받거나 저온저장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손해를 보기도 하는 등 1차 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영동 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차 산업을 육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군청과 주민이 출자하여 와인코리아(주)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와인코리아(주)는 2004년에 22억 5천만원을 출자금으로 시작한 군민 기업으로, 샤토마니 와인을 생산하는 와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1996년에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처음 설립되어 와인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 노력으로 국내산 와인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750톤에 달하고 매출액도 2004년 25억여원에서 2006년 43억여원으로 2배 이상 급신장해왔다.

영동군은 군민이 출자한 와인코리아(주), 대표적인 포도산지라는 자원과 여건에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었다. 이 가운데 영동군의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이 지역농산업클러스터사업의 20개 시범사업단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동포도농산업 클러스터는 영동군청, 영동대학교, 와인코리아(주), 영동대 벤처식품(주) 등이 주축으로 산업화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지정되면서 산업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확보하였지만 영동의 지명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영동 포도와 와인의 품질에 걸맞는 브랜드 지명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06년에 클러스터사업의 연구과제로 '영동군 테마별 체험관광을 통한 고객 발굴 전략'을 세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와인트레인"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와인트레인은 열차 안에서 와인 무료 시음과 강연,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와인 제조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테마 열차로, 서울-영동(주중 1회, 주말 1회), 부산-영동(주말 1회)을 주 3회 운행한다. 이 와인트레인은 새마을 객실(2량) 및 식당칸

(2량)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200여회 18,000명 1,532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직접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와인트레인이 알려지면서 영동 포도축제의 관광객도 증가하는 간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도 낳고 있다. 예컨대 와인트레인을 운행한 이후 영동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07년 14만여명에서 2008년에는 25만명으로 급증하는 성과를 냈다.

이 와인트레인은 영동군과 와인코리아(주),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등 성공적인 다자간의 협력모델로 손꼽을 만하다. 최근에는 금산군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시켜 와인트레인에서 와인·인삼 트레인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와인·인삼 트레인을 운영하면 영동군의 포도와 와인도 즐기면서 웰빙·보양도 추구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어 영동군에게도 좋고 금산군에도 이로운 지역간 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와인트레인(열차내부)